

돈암서원이건묘정비(遯巖書院移建廟庭碑)

1903_송병선(宋秉璫) 지음_송도순(宋道淳) 씀_90.0×180.0cm



돈암서원의 이건 경위에 대한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이건 당시 응도당과 동서재는 옮기지 못하고 양성당만 이 건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로 이건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글은 송시열의 9세손인 송병선(宋秉璫, 1836-1905)이 지었으며, 글씨는 송준길의 후손인 송도순(宋道淳, 1858-?)이 썼다.

遯巖書院移建廟庭碑

書院舊在林里 事蹟詳於吾先子文正公之文矣 其後以文正公暨同春末先生 追攀綴儀 蓋於先生爲嫡傳也 肅肅中堂 悅復如移庭立雪之日 於戲盛矣 年代浸邈 山谷遷易 水失其道 浸馨宮牆 勢莫能遏 士林是庸爲懼 乃以今上庚辰 更卜於其南一里虎溪之丘 是亦先生杖屨之地也 惟凝道堂 獨立於舊址 巋然若魯靈光 而特揭養性舊額 碑亦仍屹于其前焉 祠宇之材 輸而用之 其餘易而改之 制度一視舊規 堂塗門塾 少不差爽 而所異者 移揭凝道堂額於外舍 不能建居敬精義齋 而扁於講堂左右夾室 山仰樓亦不得成 只揭其額於內舍廳欄 牆圍而爲門 仍曰入德 嗚呼 間架雖有大小之異 規模更無新舊之殊 於是乎泰山喬嶽 巖巖乎其復臨 光風霽月 灑落乎其復接 而江漢蘭牆之思 有所寓矣 嗚呼 先生以三千三百之禮 啓發昏蒙者 無非布帛菽粟之不可一日闕焉 乃得三先生傳守而無弊 彝倫賴以不墜 人文得以不晦 凡有血氣者 莫不知君臣父子之道 無所逃於天地之間 而得免夷狄禽獸之域 伊誰之

賜歟 嗚呼 震風凌雨 然後知廬屋之爲輶轅 懷山襄陵 然後知龍門之爲砥柱 衆言淆亂 然後知聖賢之爲郭郭 顧今五世之澤未斬而邪說興 七十子已沒而微言絕 竟至皮弁之類 腥羶八字 鼓篋一世 貿貿焉入于長夜 遂使諸先生所闡明者 幾乎熄矣 嗚呼 入斯院而登斯堂者 豈徒尊慕諸先生而止而已乎哉 其將以諸先生之心爲心 冠先生之冠 服先生之服 講先生之書 守先生之義 使其平日至公血誠扶持之道 毋至永墜於地 則諸先生洋洋陟降之靈 亦必莞爾也 若爾則其所以興衛先生者至矣 豈特曰尊慕而已乎哉

時 昭陽 單閼 暮春 下泮 後學 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 酒侍講院贊善 經筵官書筵官 恩津 宋秉禧撰

後學嘉義大夫史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侍講院檢校輔德宋道淳書

돈암서원이건묘정비(漣巖書院移建廟庭碑)

서원이 예전에는 임리(林里)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적(事蹟)은 나의 선조이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글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 뒤에 문정공 및 동춘(同春) 송 선생(宋先生)을 추가로 배향(配享)하였는데, 이는 이 분들이 선생의 적전(嫡傳)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엄숙하고 엄숙한 중당(中堂)은 마치 예전에 드락을 종종걸음 치고 눈 속에서 있던 날과 같은 바, 아 성대하기도 하다.

그러나 연대가 오래 지남에 따라 산천이 바뀌어졌는 바, 시냇물의 흐름이 바뀌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람(士林)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금상(今上) 경진년(1880, 고종17)에 다시금 거기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호계(虎溪)의 언덕에 터를 잡아 새로 지었는데, 이곳 역시 선생이 예전에 오가던 곳이다. 이에 오직 응도당(凝道堂)만 홀로 옛 터에 서 있게 되어 우뚝한 그 모습이 마치 노(魯)나라의 영광전(靈光殿)과 같은데, 특별히 양성당(養性堂)이라고 쓴 옛 편액이 걸려 있으며, 비석 역시 그 앞에 우뚝이 서 있다.

새로 지은 사우(祠宇)의 재목은 옛 사우의 재목을 실어다가 썼으며, 그 나머지는 바꾸어서 고쳤다. 사우를 지은 제도는 한결같이 옛날의 규모대로 하여 당(堂)과 도(塗)와 문(門)과 속(塾)을 조금도 차이 나지 않게 하였으며, 다른 것은 응도당이라고 쓴 편액을 바깥채로 옮겨서 건 것이다. 그리고 거경재와 정의재는 새로 세우지 못하고 편액만 강당(講堂)의 좌우 협실(夾室)에 걸었으며, 산양루(山仰樓) 역시 짓지 못하고서 단지 그 편액만 내사(內舍)의 대청 문 위에 걸었다. 그리고 담장을 두르고서 문을 만들었는데, 문 이름은 입덕문(入德門)이라고 하였다.

아, 간가(簡架)는 비록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규모(規模)는 예전 것과 새 것의 다름이 없다. 이에 태산교역(泰山喬嶽) 같은 우뚝함이 다시 임하였고, 광풍제월(光風霽月) 같은 세락함을 다시 접하게 되어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붙일 곳이 있게 되었으니, 아 기쁘다.

선생은 삼천 가지 곡례(曲禮)와 삼백 가지 경례(經禮)를 가지고 어둡고 어라석은 자들을 띄워 주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포백(布帛)이나 속속(菽粟)과 같은 것이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에 세 분 선생이 전수받아 폐단이 없게 하였는바, 이룬(彝倫)이 이에 힘입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인문(人文)이 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혈기(血氣)가 있는 자라면 모두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도가 천지간에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적(夷狄)이나 금수(禽獸)가 힘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덕분인가. 아, 슬프다.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비가 내린 다음에야 하옥(廈屋)이 가림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진 다음에야 용문(龍門)이 지주(砥柱)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못 사설(邪說)이 어지럽힌 다음에야 성현(聖賢)들이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을 아는 법이다.

돌아보건대 지금 오세(五世)의 은택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이 일어나고, 칠십자(七十子)가 이미 죽어서 은미한 말이 끊어졌다. 이에 마침내는 오랑캐의 무리가 되는 데에 이르러서 온 천하에 누린내가 진동하고 온 세상이 사독한 설을 떠들며 대어, 길고 긴 밤 중이 된 듯 깜깜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 선생들이 천명(天明)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이 서원에 들어서고 이 당에 오르는 자들이 어찌 한갓 선생들을 존모하기만 하고 말아서야 되겠는가. 장차 여러 선생들이 품었던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여러 선생들이 썼던 관을 머리에 쓰고, 여러 선생들이 입었던 옷을 몸에 걸치고, 여러 선생들의 책을 감승하고 여러 선생들의 의리를 지켜, 그 분들이 평소에 지공무사(至公無私)한 혈성(血誠)으로 지켜왔던 도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별 경우 실제로 있는 듯이 오르내리는 여러 선생들의 훈령 역시 반드시 빙그레 웃으실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선생들을 보위하는 것이 지극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단지 존모하기만 하고 만 것이라 하겠는가.

소양단일(昭陽單閼, 癸卯, 1903, 광무 7) 모춘(暮春) 하한(下泮)에 후학(後學) 가의대부 사헌부대사 헌경성균관좌주시강원찬선경연관서연관(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經筵官書筵官) 송병선(宋秉璫)은 찬한다.

후학 가의대부 이조참판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시강원검교보덕(嘉義大夫史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事侍講院檢校輔德) 송도순(宋道淳)이 썼다.

※ 宋秉璫, 『淵齋集』卷32, 神道碑, 「遯巖書院移建廟庭碑」에 수록.

※ 번역: 「돈암서원(遯巖書院)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